

○ KCB 갤러리 나누고 싶은 모습들 ○



창립60주년 기념 음악회



옛교우: 이경원 교우 부부



옛교우: 박영복 교우와 딸



청년2부 새교우 환영회



변화경 장로의 찬양대 지휘자 사임 인사



남선교회 헌신예배



Oasis Cafe Music Night



안지혜교우-화음보스톤과 협연



제직 임직 예비

지난 2월 2일 주일에는 한 해를 교회에서 봉사로 섬기실 신임/제임 제직들을 임직하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임직된 제직들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된 종으로 스스로의 삶에서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평을 위해 일하기로 서약하였고,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친구 없이 외롭고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힘이 되어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함과 동시에 늘 교회의 화평과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진작시키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각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섬기실 구역장들에게도 ‘구역원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구역원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로 서약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4년도

추천 장로(1명): 이정민

추천 권사(6명): 김영미, 김정림, 김한나, 서명숙, 신미송, 이경자

추천 안수 집사(5명): 김경태, 김진홍, 김재영, 윤향중, 채진병

재 선출 장로: 김영범, 박신영, 이선영 장로님(3명)

재 선출 집사: 강혜정, 김동규, 김동숙, 김은미, 김정림, 방경남, 배성희, 서명숙, 신소정, 유승오, 이경자, 이성희,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주정대, 최창열, 한정인, 황동준 집사님(19명)

신임 서리 집사: 강모영, 김미숙, 김상지, 김애리, 남궁원, 박상철, 박종원, 배광현, 안원미, 이원희, 이혜원, 장영준, 정유미, 최병운, 최정환, 한세진, 홍성일 (17명)

2014년도 구역장: 김정림, 김현구, 최준영, 이숙재, 이경자, 이재익, 윤주한, 신보경, 박종세, 방경남, 김제성, 박애리, 김진기, 이정민, 최창열, 이영완

3월호 목차

- : 제직임직예배
- : "Glorious Season!"
- : PILP에 대하여
- : 2014년도 당의 위원회
- : 교육 3부 위원회
- : 구역장 및 교구장
- : 정의평화 환경위원회
- : 해외선교 위원회
- : 홍보 위원회
- : 예배예술위원회의
- : 권사회
- : 개구쟁이와 짝별하기
- : Ransom 중고등부
- : 나와 교회에 위로가...
- : 우리를양상 지켜주시는
- : 집사회
- : Sulflower 유년 초등부
- : 마리아/에스터어선교회
- : 부부 청년부
- : 남선교회
- : 그루터기 청년2부
- : 탁구동우회
- : 국내 선교 위원회
- : 새교우 환영반
- : KCB 갤러리



“Glorious Season!”

이영길 담임 목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책방에 들렸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천주교 서점입니다. 책을 고른 후 카운터에 섰습니다. 수녀님은 제가 산 책들을 보더니 금방 하시는 말이, “Glorious season is coming!” 저에게는 사순절을 새롭게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순절을 영광스런 시간이 되기 위해 참회와 절제와 구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영광스런 시간이 되기 보다는 또 다른 자책의 시간이 되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회와 절제와 구제에 못 미치는 자신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순절은 어두움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순절은 ‘참회와 환회’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서 정말 사순절은 영광스러운 사순절이 되는 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회와 절제와 구제는 곧 환회입니다. 이것은 땀과 눈물 수 없는 상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계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참회와 절제와 구제에 동참하십시오. 한편 한 순간도 환회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순절은 영광스러운 계절입니다.

당회 소식

당회서기 한승희 장로

1. 2014년도 1월 12일 공동의회를 가졌습니다.
 - 2014년도 예산안 총 1,010,000을 인준하였습니다.
 - 행정부목사(윤경문 목사) 임기 연장건(2014-2016년도)을 인준하였습니다.
 - 아래와 같은 신임/제임 제직 선출 인준이 있었습니다.
2. 2014년도 프랑스 단기선교간: 해외선교위에서 결정하여 추천한대로 프랑스를 2014년도 새로운 단기 선교지로 선정하고 이를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2014년도 회계로 김준구 집사님을 임명하였습니다.
4. 청년 2부 담당 목회자로 윤경문 행정 부목사께서 겸임하시게 되었습니다.
5. 본교회 2부 찬양대의 지휘자이신 변화경 장로님이 1월부터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6. 예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박진옥 집사가 2부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도록 결정하였습니다.

“PILP 에 대하여”

이사회장 권복태 장로

“ECC 건축 Loan 이자율 절감을 위하여 PILP에 교우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CC 건축을 위하여 본 교회가 Loan을 받고 있는 PILP에서 유희자금에 대한 투자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 형식으로 자금을 예치하면 (Minimum \$500), 각 예금주는 소정의 이자를 받게 되고, 본 교회를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 절감 Program의 수혜자로 지정하므로 현재 내고 있는 Loan의 이자율이 낮아져서 본 교회가 매월 내는 이자를 절약하게 되는데, 2013년에만 약\$9,000을

절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탁금액이 많아 질수록 본 교회가 차용한 이자율이 더욱 낮아져서 많은 이자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IRA도 예탁 가능하며, 타 교회 교인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사회 이사장 권복태 장로 (781)408-9430 으로 문의 바랍니다.

** PILP(Presbyterian Church (USA) Investment & Loan Program Inc.)

천교회 장로이십니다. 김은상 교우는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했으나 대학교 때 신앙의 확신을 얻었다고 하며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국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승환/강숙임 교우 가정 (중앙 3구역)은 두 자녀 준원(1학년), 지윤(K)과 함께 지난 9월에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한국 강원대 병원에 스태프로 근무 중에 MGH Visiting Scholar(Neurology)로 1년 연수 예정입니다. 미국 연수가 급하게 결정되어 나오게 되었고 낯선 곳에 적응이 힘들었는데 이태진 장로 가정 도움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빠빠한 연구 생활이 고등학교 수험생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합니다.

민필기/안정아 교우 가정 (중앙 4구역)은 지난 해 9월에 두 딸 Daisy(K), Jasmine(Pre K)과 함께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민필기 교우는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의사로 있으며 2년 계획으로 BWH Post-doc fellow로 있습니다. 교회는 아내를 만나 다니기 시작하셨고 이해영 교수 소개로 보스톤한인교회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정아 교우는 현재 Northeastern University Visiting Scholar로 오셨습니다.

2014년 2월 새교우 환영반:

지난2월 2일, 9일, 23일 3주에 걸쳐 오전 10:30-11:30, 새교우 환영실(Parlor)에서 이영길 목사님의 지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2월 새교우 환영반을 마친 가정은 김의석/김소현, 김철/박복희, 장봉준/황지현, 한정훈/최유정 입니다.

김의석/김소현 교우 가정(중앙 3구역)은 분당 서울대 병원과 인하대 부속병원에 각각 재직 중에 MGH, Brigham & Women's Hospital에 Research associate으로 아들 은찬, 장인 장모님과 함께 보스턴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온누리 교회에서 성경공부, 구역공부를 하셨습니다.

김철/박복희 교우님은 김소현 교우 부모님으로, 박복희 교우님은 소망교회 권사님이시며 특별히 꽃꽂이 봉사로 교회를 섬기셨고 손자 은찬을 돌보며 보스턴 생활을 즐기는 생활이 되길 바라신다고 합니다. 중앙 3구역 소속입니다.

장봉준/황지현 교우 가정 (중앙4구역)은 미국 생활

7년차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작년엔 보스턴으로 오셨습니다. 장봉준 교우는 현재 BU에서 Mechanical Engineering을 공부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하셨습니다. 황지현 교우는 천주교 집안인데 결혼하면서 남편과 같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특별히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녀는 Esther(4th grade), Abigail(Pre K) 두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고 베풀 수 있는 삶, 안정적인 삶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정훈/최유정 교우 가정(중앙 3구역)은 성균관대(수원캠퍼스) 물리학 교수로 재직 중에 안식년을 맞아 MIT에 연구차 아들 만형(8th grade), 딸 지우(6th grade) 함께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한정훈 교우님은 83년도에 아머님 안식년 때 브루클라인 고등학교에 다니신 적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중3 아들이 브루클라인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애틀에서 유학을 하셨고, 안식년을 맞아 보스턴에서 생활하는 동안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재창조하는 기간이 되길 바라십니다. 아내인 최유정 교우님은 법원에 판사로 있다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없는 삶이 힘들어 최근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며 구체적으로 위로하는 변호사가 되길 바라십니다. 중앙 3구역 소속입니다.

이번 새교우 환영반 교우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환영 만찬을 준비하시고 초대해 주셔서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김성현/이은주 장로님 가정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교우 환영반에 관한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위원회 윤미자 집사: 978-987-7388/mija-yun@hotmail.com



국내선교 위원회

위원장 이선영 장로

- Oasis Cafe Music Night이 3월 15일(토) 열렸습니다. Berklee Jazz Musicians(장승호 교수리드, Andrew Marzotto, Gregory Groover Jr. Noam Israeli, Jaehun Kang)들이 초청되어 아름다운 재즈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브루클라인 이웃을 위한 공연으로 열리는 이 Oasis Cafe Music Night에 많은 분들의 참여하여 아름다운 재즈 음악을 감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웃 선교

를 위해 계속적으로 Oasis Cafe Music Night이 선사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선교의 일환으로 5월 인디안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맹호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선교 세미나를 갖고, 아리조나 원주민들을 위한 단기선교를 계획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쉐마의 밤

3세대가 함께 하는 쉐마의 밤이 3월 29일 (토) 열렸습니다. 김수영 전도사님의 찬양 인도와 아울러,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형제와 자매라”란 제목의 담임목사님의 말씀후, 여러 제목의 기도의 시간들(가족, 이웃/국내선교를 위하여..., 제직과 교회를 위하여, 세계 평화와 해외선교를

위하여)을 차례로 가졌습니다. 이번 쉐마의 밤에는 특별히 신임 안수 제직들의 특별 찬양이 있었으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Presentation과 간증 시간도 가졌습니다. 3세대가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새교우 환영반

윤미자 집사

2013년 10월 새교우 환영 교육반:

10월 6일, 20일, 27일 오전 10:30~11:30, Parlor에서 3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새교우 환영반 교육을 마친신 교우는 오형석/박혜인, 이승환/강숙임, 민필기/안정아, 이태진/김은상, 강중균/이유진 가정입니다.

엄재관/김용희 장로님께서 10월 새교우 환영반 3주 교육에 함께 해주셨고 교육을 마친 후 새 교우들을 가정에 초대해 환영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형석/박혜인 교우 가정은 결혼 5년차이고 2, 4살 두 자녀가 있으며 보스턴에 온 지3년이 되었고 현재 부부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post-doc 과정에 있으며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중균/이유진 교우 가정은 미국에 지난 해 1월에 오셨고 두 분 모두 대학교 때 새로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중균 교우는 현재 BWH에서 Post-doc 과정에 있으며 알츠하이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년동안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이유진 교우는 딸 조은이가 10개월 때 미국에 함께 왔습

니다. 보스턴 정착이 쉽지 않은데 잘 정착해서 아이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행복에 거주, 중앙4구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이태진/김은상 장로 가정(중앙 3구역)은 7년 전에 하버드 연수 차 오셨을 때 보스턴한인교회에 잠시 다니신 적이 있고, 안식년을 맞아 같은 곳에 오셔서 연구하시고 신앙 생활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서울대학 보건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춘



2014년도 당회 각 위원회

당회	위원회	당회장	이영길 목사
		당회서기	한승희 장로
	1부 교육위원회	1부 위원장/부위원장	김세철 장로/이은주 집사
	2부 교육위원회	2부 위원장/부위원장	김영범 장로/한문수 집사
	3부 교육위원회	3부 위원장/부위원장	권복태 장로/방경남 집사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선영 장로
		부위원장	유승오 집사/이혜원 집사
	홍보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재정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김성현 장로/김준구 집사
	기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성현 장로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위원장	김정선 장로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안성완 장로/김경애 권사
	교인위원회	위원장	이정규 장로/윤미자 집사
	건물 운영 위원회	위원장	엄재관 장로
	60년사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김정선 장로/박신영 장로
	재단이사회	이사장	권복태 장로
		예배예술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회		이영길 목사, 한승희 장로	권복태 장로, 김성현 장로 박신영 장로
공천위원회 감사 노회총대 회계		위원장/부위원장	김세철 장로 / 김영범 장로 안성완 장로 한승희 장로/엄재관 장로 김준구 집사
	집사회	회장: 최현구 집사	고문: 엄재관 장로
	1부찬양대	대장/부대장	조준호 장로/엄재관 장로
	2부찬양대	대장	김영범 장로

교육 3 부 위원회

위원장 권복태 장로

성인 소그룹 성경공부반

이제 발족된지 3년 4개월이 되는 소그룹 성경공부반은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자들의 헌신으로 작년에는 눈에 보이게 많은 영적성장을 이루었는데 앞으로 더욱 은혜로운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인도자 예비교육:

- (가) 매월 2회 실시: 매월 첫주는 구역 성경 공부 인도자 모임(이영길 목사님 인도)과
- (나) 월중에는 소그룹 인도자 모임(이요한 목사님 인도)이 있었습니다.

2. 2013년 말씀 나누는 공과: 말씀과 함께

- 1월-2월: 2012년 겨울편(로마서: 주님이신 예수)
- 3월-5월: 2013년 봄편(이사야: 절망에서 소망으로)
- 6월-8월: 2013년 여름편(갈라디아서, 디도서, 빌레몬서: 현재를 넘어서)
- 9월-11월: 2013년 가을편(열왕기 상, 하: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 12월: 2013년 겨울편(누가복음: 예수님과 하나님의 통치)

3. 2013년 주요 행사:

- (가) 중보기도 모임: 11월 10일 1:30부터 3:30까지 (안드레 반)의 박 신영 장로가 인도한 첫 중보기도 모임이 지하실 B14에서 10명의 참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가 개인과 그 가정 그리고 교

회의 여러 성도들과 각 기관의 기도 제목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및 당시 태풍으로 큰 재난을 입은 필리핀 과 그 인근의 피해지역에 대한 빠른 복구와 위로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는데, 향후 이러한 기도 모임이 소그룹 뿐 만 아니라 전 교회로 퍼져나갈 기도합니다.

(나) 소그룹 성경공부 전체 SHARING 모임: 12월 15일 폭설 다음의 불순한 도로사정에도 불구하고 약 60여명이 COMMUNITY CENTER 에 모여 말씀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로서 각 반별로 서로를 알리며 신앙을 간증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도 개근상은 (전은영, 박양신 집사) 두 분이, 그리고 성경 완독상은 작년의 한 분에서 (홍 경자 장로, 변 수연, 이 지영, 전 유영, 윤 규한, 문 형근, 엄 인숙, 주정대 집사) 등 여덟 분이에게 수상시상, 축하하였습니다.

성인 소그룹 성경공부는 매주 주일 1부와 2부 예배 사이인에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나누는 성경공부,)와 (듣는 성경공부)를 모토로 하는 소그룹 성경공부는 말씀을 나누는 반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므로 우리 내면으로부터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며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도전의 시간이 됩니다.

4. 각 반별 현황

반 이름	인도자	부 인도자	교실	시간
베드로반	권 복태 장로	홍 경자 장로	Room 102	10:30-11:30
다니엘반	김 동숙 집사	이 숙재 권사	B8	10:30-11:30
안드레반	박 신영 장로	남궁 원 집사	B15	11:00-11:50
빌립반	이 선영 장로	김 동규 집사	B14	11:00-11:50
요한반	심 윤보 집사	김 대식 집사	B18	11:00-11:50
바울반	정 하균 집사		친교실 오른쪽방	11:00-11:50
부부청년반	한 문수 집사	문형근 집사	친교실 내 도서실	11:00-11:50
강의식 공부	이 요한 목사		B4	11:00-11:50

탁구 동호회

권복태 장로

[탁구 예찬]

내가 탁구를 처음 시작한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고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 교회에 탁구 동호회가 발족되면서 다시 라켓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는 탁구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Ball로 하는 운동이라 생각하여 큰 뜻을 품은 싸나이가 할 만한 운동이 아니라고 박절히 걷어차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후회가 막급입니다.

청년시절에는 당구에 심취하여 저녁밥도 걸르기가 다반사였고, 미국에 온 후로는 테니스를 열심히 쳤으나 팔꿈치와 무릎 관절 그리고 어깨 근육 부상 등으로 중단한지 오래되었으며 그나마 즐기던 golf도 시간이 마땅찮아 몇 년 전부터 그만 두게 되자, 그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지요.

몸무게는 늘고, 신체의 유연성도 줄어들며 하체의 힘도 약해져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다리가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지며 일 하는 중일 동안 뒷골이 당기며 피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년전 탁구동호회가 결성되었으나 친교실의 조명 이 너무 어두워 연습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했던 동호회는, 작년에 교회에서 친교실에 조명을 추가 설치해 주면서,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즉시 “60주년 기념 전교인 탁구 대회”를 성황리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탁구를 시작한지 1개월 만에 몸무게가 10LB 나 빠져나갔고, 서서히 다리 근육이 조성되면서 처음에는 15분만 탁구를 쳐도 숨이 가빠왔는데 이제는 한 시간 반을 뛰어도 별로 피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3:1-2) 이 말씀처럼 지난 날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탁구가 이렇게 나에게 꼭 필요한 운동으로 다가선 이유는 나이와 시간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알고 보면 탁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1973년 사라예보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단체전에

서 대한민국 최초로 구기 종목의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한 이 에리사 선수는 “탁구요? 전신운동으로 운동량이 엄청납니다” 라고 탁구 운동효과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대중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점만도

1. 탁구는 뇌에 피의 순환을 많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뇌 회복에 효과가 탁월하다.
2. 탁구는 골 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3. 탁구는 전신운동이면서 하체운동을 많이 하므로 바른 자세 및 정력증진에 효과가 크다.
4. 탁구는 순간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판단력이 뛰어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다.
5. 탁구는 실력과 나이에 따라 운동량을 가감할 수 있고 남녀노소 함께 어울릴 수 있다.
6. 탁구는 공을 따라 눈이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안구운동이 활발, 시력 유지에 좋다.
7. 탁구는 실내운동이므로 썬 크림이 필요 없어 피부암, 기미, 죽은개 등의 피부 미용에 좋다.
8. 탁구는 실내운동이므로 기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9. 탁구는 공이 가장 가벼울 뿐 아니라 마루 운동이므로 운동으로 인한 부상이나 무리가 없다.
10. 탁구는 유산소 운동이므로 고혈압, 비만, 당뇨, 만성피로, 무기력증 등에서 해방시켜주고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엄청난 양의 땀을 배출, 노폐물도 제거하며 최적의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11. 탁구는 시간적, 금전적으로 경제적이므로 가사 및 잔디깎기 등 집안 일을 빠지 않고도 할 수 있으므로 가사일로 인한 부부싸움도 막을 수 있다.

참고로, 본 교회 탁구 동호회는 매주 토요일 아침, 토요일 기도회가 끝나고 친교실에서 연습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탁구대는 4대가 있고 Robot 자동 Ball 투사기가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는 Lesson도 해 드립니다.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모든 수준의 참가자가 연습 및 게임을 즐기며 기량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호회원들이나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회장 권복태 장로(781)408-9430
부회장 이문영 집사(617)784-5604

남선교회

회장 이문영 집사

2014년 1월 5일 첫째 주일에 남 선교회 주최 신년 웃놀이 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웃놀이 하였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1월 18일에는 찬이 아빠를 모시고 세미나를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북한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주민들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졌고 약간의 후원금을 지원 할 수가 있었습니다.

3월 2일 남 선교회 헌신예배를 은혜가운데 드렸습니다. 이승현 강사 목사님께서(앤도버 뉴튼 신학교)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겨자씨 만한 섬김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해주셨습니다. 헌신예배를 준비 하면서 많은 남 선교회원들이 참석하여 주셨고 한정인 집사님께서 피아노를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3월 22일 집사회 주최 교회 대청소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청소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선교기금,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2부

담당: 윤경문 목사

1. 청년 2부 수련회: 4월 4일-4월 6일 (금-주일) 까지, 강사 이순우 목사님 (로체스터 한인 장로교회, PCUSA)을 모시고 ‘신앙과 윤리’란 주제로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Grotonwood 수련회장에서 야외 activity와 청년부원 중 각기 전공분야에 관해 소개하는 세미나(구용한 집사,

황지원, 권호근, 송민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특기 사항

- 청년 2부를 support해 주신 담당 집사님으로 구용한 집사님이 섬겨주시도록 교육 2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 3월 2일 임시총회를 갖고, 회장단 선출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회칙수정을 하였습니다.
- 2월중 몽골 선교사님들의 방문으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 2월중 평양 과거대 선교사님들의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도 구역장 및 교구장

북동교구-교구장: 박신영 장로	북동1구역 구역장: 김정림 집사	남서교구-교구장: 최연일 장로	남서1구역 구역장: 이정민 집사 남서2구역 구역장: 최창열 집사
북서교구-교구장: 박영철 장로	북서1구역 구역장: 김현구 집사 북서2구역 구역장: 최준영 집사	남동교구-교구장: 김정선 장로	남동1구역 구역장: 박종세 집사
중앙교구-교구장: 조준호 장로	중앙1구역 구역장: 이숙재 권사 중앙2구역 구역장: 이경자 집사 중앙3구역 구역장: 이재익 집사 중앙4구역 구역장: 윤주한 집사 중앙5구역(빛과 소금) 구역장: 신보경 집사	International Fellowship 교구 -교구장: 김성현 장로	구역장: 이영환 집사
중서교구-교구장: 안태준 장로	중서1구역 구역장: 방경남 권사 중서2구역 구역장: 김제성 집사 중서3구역 구역장: 박애리 집사 중서4구역 구역장: 김진기 집사	부부청년부	회장: 차민호 집사
		청년1 부	회장: 심새희 교우
		청년 2부	회장: 엄순호 교우

집사회

회장 최현구 집사

지난해 회장단으로부터 집사회 살림을 인수인계 받아 2014년도 2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문장로 : 엄재관
 전임회장고문단: 최정열, 김동규
 회장: 최현구 총무: 이재익
 서기: 이지훈 회계: 김용욱
 건물관리부(부/차장): 김대식 / 배광현
 경조부: 최정열
 봉사부(부/차장): 정광근 / 최학수
 체육부(부/차장): 백승환 / 류승열
 친교부: 김현주 홍보부: 정재원

2월21일 금요일 저녁에 교회 지하 소 예배실에서 고문이신 엄재관 장로님을 모시고 집사회 새 임원들이 모여 올 한 해 집사회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게 될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3월 22일 토요일에 실시한 봄맞이 교회 대청소로서 주님의 교회를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기 위해 장로님, 각 부서 목사님, 전도사님, 청년부 형제 자매들까지 약30여명의 교우님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엄재관, 이정규 장로님 두 분께서 가장 어려운 작업인 1층 부역의 스토브 청소를 맡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김건철, 이요한 목사님, 김수영 전도사님께서도 집사님들, 청년부 형제자매들과 조를 이뤄 교회의 구석구석을 열심히 청소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월5일에는 예배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제직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집사회에서는 몇 가지 순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는 집사회가 주관하는 연중행사 중 교회의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어머니주일 (5/12) 오찬준비가 계획되어 있고, 5/24일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Watertown의 Arsenal Park에서 전교인 야유회를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각 위원회 및 부서,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크고 작은 교회의 행사 및 살림을 잘 감당해내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올 한해도 열심히 섬기는 집사회가 되도록 교우님들의 기도와 지원, 그리고 집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외선교 위원회

위원장 안성완 장로

1. 몽고 국제대학에서 1월 24일 금요일에 청년 1, 2부 대상으로 세미나를 갖고, 같은 날 몽고 국제학생 간담회에 김성현, 이유택, 이태진 교수님이 참여하였습니다.

2. 평양 과기대/Medical School 그리고 북한소식 세미나: 평양 과기대에서 방문 - 2월 9일 주일 Youth Group 에서 전도사님의 설교 후 세미나 실시하고, 2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3. 단기선교 준비

- a. Dominican Republic 단기선교 - 7월 26일 - 8월 2일
- b. Nicaragua 교육선교
- c. Colombia

4. 프랑스 단기선교 예정: (6월 27일 - 7월 6일) Youth Group 에서는 2월 16일부터 프랑스 단기선교 단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선교 오리엔테이션을 3월 9일 2부예배후 가졌습니다. Youth Group 의 Daniel 전도사님 부부께서 프랑스 단기선교팀을 인솔할 예정입니다.

홍보 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홍보 위원회의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편집 및 도서 관리 팀 (김한나 집사, 김희수 교우, 최정열 집사, 윤경문 목사): 3월 1일에 2014년 사순절 목상집을 발간했습니다. 수고하신 편집팀과 표지 디자인을 해주신 김희정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부터 내년 사순절 목상집을 위한 원고를 모을 예정입니다.

이봉옥 집사, 정재원 집사, 방경남 집사, 하대준 집사) : CP Online Solutions 회사를 통해 ‘교회 웹사이트를 새로운 포맷으로 전환하여 우리가 쉽게 내용을 변경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교회 여러 부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홈페이지는 모바일 용 웹사이트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이패드와 타블렛에서도 PC처럼 홈페이지가 잘 보이게 됩니다. SNS용 시스템 기능을 포함하여 페이스북 북과 유튜브 등과 같이 자동 연결되어 있는 SNS시스템에는 링크가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됩니다.



앞으로 보스톤한인교회 홈페이지와 여러 부서의 활동을 보여주는 블로그 웹사이트의 연결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연결된 사이트로는 ‘실시간 설교방송’, ‘ECCCKB.org’, 사진과 비디오를 담은 Zenfolio,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사이트 (kcbevents.org), 그리고 시내산 동우회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2. 멀티미디어 팀 (유승오 집사, 김상기 집사) 과 IT (information technology) 팀 (유승오 집사,

부부 청년부

회장 차민호 집사

1. 2013-2014 임원진 선출

*작년 11월 10일 부청 헌신예배 후에 부부 청년부 새 회장단을 투표로 선출하였습니다. 회장에 차민호/신민영 가정, 부회장에 문형근/이지영 가정, 총무에 박상철/이혜원 가정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어, 12월 초에 올 한 해를 섬길 임원진을 부서별로 꾸렸습니다. 회계로는 노현철/노현미 가정, 서기에 나해서/김지희 가정, 찬양 팀에 독고훈/이근희 가정, 송경수/사공수인 가정, 최정규/심진희 가정, 나눔 팀에 김태훈/육혜진 가정, 배광현/정유미 가정, 채진병/최수경 가정, 생활 팀에 이지훈/정은아 가정이 선출되었습니다.

*영적 리더로써 섬겨주실 성경공부리더로는 이지훈/정은아 가정, 류승열/임윤아 가정, 문형근/이지영 가정, 배광현/정유미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2. 주요행사들

*작년 11월 29일에는 추수감사절 모임으로 17가정이 참석하여 새 가족 환영, 교제 및 감사제목을 나누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는 연말을 맞이하여 연말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14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고, 각 가정에 한 해를 돌아보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해온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통해 귀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26일에는 구정을 맞이하여 설날맞이 조별 대항 activity를 가졌습니다. 한 해를 맞이하여 조별 친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통해 부부 청년부 조원들의 협동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부청년부의 담당교역자이신 김건철 목사님께서 코트디부아르 신학교 초청 강의관계로 2월 9일부터 22일까지 출타하셨으며, 2월 마지막 주일에는 목사님의 선교보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조준호 장로님을 초청하여 부부 청년부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3. 교회활동

- *2월 9일 평양 과거대 세미나를 참석하였습니다.
- *3월 22일 교회 대청소에 참석하였습니다.
- *3월 23일 에스터 여선교회 헌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4. 근황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가정이 새로 등록

하셨고, 1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으로는 최일규/안고은, 황규라/서정희/황애린/황애반, 김승욱/이혜민, 박홍규/김미양/박아영/박보영, 이원기/이혜영 가족이 오셨고, 올해 2월 16일 조훈성/리순아/조인우/조은총 가정이 한국으로 금의환향하셨습니다.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12월에 22일에 유아세례를 포함하여 4명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자로는 전주영 자매, 전재완/유진선 가정의 아들 전현준, 김태훈/육혜진 가정의 딸 김지인, 한국/손효정 가정의 딸 한유주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 12월 27일에는 배광현/정유미 가정의 딸 배이솔 양이, 올해 1월 10일에는 류승렬/임윤아 가정에 넷째딸 류재희 양이, 3월 24일에는 조훈성/리순아 가정의 딸 조은총 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5. 앞으로의 계획들

* 부청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생일 파티를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청에 속한 각 가정의 삶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매달 한번씩 나누고 있습니다.

* 3월 1일부터 김건철 목사님의 지도 아래 토요일 오후에 Room #4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진행이 될 계획이며, 격주로 성경공부 모임을 가정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됨을 느끼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 또한, 부청에서는 해외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7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부청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회장 이성의 집사

우선 에스더의 이름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임원분과 회원 여러분께 한 울타리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에스더의 가장 큰 일은 2부 다과와 헌화를 준비하는 것과 교회 부역살림을 관리하는 것 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매주 일찍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섬김을 보여주는 노윤경 집사님, 최정우 집사님과 여러 회원들, 항상 부역 살림이 떨어지지 않게 신경 쓰고 준비하시는곽서영 집사님, 다과를 준비하기 위하여 매주 연락을 하시는 김명은, 변옥화 집사님, 헌화를 준비해 주시는 김희정 집사님,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 수고하시는 김경태 집사님, 그 외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말없이 봉사하시는 많은 회원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교회의 여러 지체를 섬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14년 남은 기간도 에스더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안 있었던 에스더의 행사들과 앞으로의 계

획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 2013년 12월 15일: 에스더 여선교회 총회
- 2014년 1월 5일: 남선교회를 도와 신년 주일에 배 점심을 준비
- 2014년 1월 26일: 에스더 여선교회 총회
- 2014년 2월 2일: 제직 임직식 특별 다과 준비
- 2014년 3월 2일: 마리아 여선교회 주최 세계기도일 여성기도 모임
- 2014년 3월 5일: 재의 수요일 예배 후 다과 준비
- 2014년 3월 9일: 목사님 생신 케익 준비
- 2014년 3월 23일: 여선교회 헌신예배
- 부활주일 예배와 성 금요일 예배 특별 다과 준비, 부역 대청소, 어머니 주일 예배 행사 준비가 2014년도 상반기에 남아있는 저희의 일입니다. 앞으로의 여러 행사준비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기쁨과 감사를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청년 1부

담당: 이요한 목사

1. 2014 봄수련회: 지난 2월 7일 (금) - 9일 (주일)에는 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the Called: 사명자” 라는 주제로, 강사는 담당교역자인 이요한 목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총35명이 참석했으며, Lincoln, NH로 다녀왔습니다.

2. Outreach: 현재 하고 있는 매주 토요일 새벽 Homeless Shelter 봉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29일에는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Homeless Shelter측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Appreciation Breakfast를 준비해 주었고, 간소한 ceremony를 갖기로 했습니다.

3. 정기총회: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활주일에 2014년 청년1부 정기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총회를 통해서 2014년 7월 - 2015년 6월까지 섬길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현 임원단의 임기는 6월말까지 입니다).

4. 학기말 야외 모임: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4월 27일 (4월 마지막 주일)에 야외에서 교제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엔 졸업하는 청년들을 위한 축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의 여러 행사준비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기쁨과 감사를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예술 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 2월 초에 2부 찬양대 지휘자 초청 소위원회 모임을 가진 결과, 현 1부 찬양대 지휘자(박진욱 집사)를 2부 지휘자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송실: 하대준 집사가 홍콩으로 이주함에 따라 김진홍 집사가 새 봉사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동시통역 팀: 10여년 팀장으로 봉사하던 박성준 집사가 사임하고 백승한 집사가 팀장으로 봉하게 되었습니다.
통역팀: 백승한, 박성준, 이혜승, 조나연, 오은주, 이혜원.

- 3월 5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아울러 3월 6일부터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사순절 새벽기도회는 대부분 담임목사님이 담당하시고 윤경문, 김건철, 이요한, 김수영 등 교역자님들께서 수고하시고 또한 매 월요일에는 장로 (권복태, 박신영 장로)님들께서 인도하십니다.

봉사자: DOOR OPEN: 안성완 장로/ 오디오준비: 최학수/ 반주: 이성희/ 다과: 마리아
여선교회(고경아, 김영순)

2014년 제직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 일정 : 4월 5일~6일
- 주제: [역사속의 하나님, 역사속의 인간: '인간의 문제' 와 청교도 이해]
- 강사: 김도훈 목사(뉴헤이븐한인교회 부목사)

- 예술분과 소위원회 모임을 갖고 올 한해 행사점검을 하였습니다: 부활절 특별순서는 1부 찬양대, 성탄 특별순서는 1,2부 합동으로 준비를 하고 저작권법에 의거한 모든 교회음악 사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유초등, 중고등, 대학청년, 쉼마 및 교회 찬양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음성가(CCM)에 대한 사용권을 우선 신청하고(최현구 집사 담당), 한국음악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3/12 에 복음성가에 대한 1년 사용권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의 찬양인도자들에게 복음성가 사용에 관한 교육 session을 가질 예정입니다.



권사회

회장 이계순 권사

유난히 눈도 많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벌써 3월 말이 되었습니다.

올해 권사회의 임원진은 회장: 이계순, 부회장: 진신애, 총무 및 회계: 김춘미, 고문: 이성혜 사모, 김지수 사모, 조순래, 이숙재 권사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권사회는 정기적으로 매달 두 번째 주일에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에 힘쓰고 봉사합니다.

올 해부터는 될 수 있으면 전화로 서로 연락하여 소통과 친목을 하며 우표 값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세계여성 기도일 예배에 12분의 권사님들이 참석하였고 순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3월 9일에는 이영길 목사님의 61세 생신을 축하해 드렸고, 3월 23일에는 청년 1,2부 점심 대접을 위해 권사님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임무를 다 할 수 있게 우리 임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개구쟁이들과 작별하기

임보라 집사

보스턴에서는 누군가를 떠나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맞는 일은 참으로 혼한 풍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들을 떠나 보내는 일에는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떠나 보내는 일이 떠나는 사람들 보다 더 힘들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10년 가까이 보스턴 생활을 정리하면서 정든 사람들과 익숙한 장소들에 안녕을 고하는 일 또한 녹록치 않다.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던 교회에, 특히 썬플라워 선생님들에게, 그 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가 막막하다.



썬플라워 선생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교사 회의로 시작으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가르침의 노하우를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했던 시간들이 섬김의 동역자라기 보다는 전쟁터의 전우들 같았다.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만큼 힘이 들고 진이 빠지는 일이기도 하다.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선생님들의 뒷모습을 보면 그 쉽지 않은 과정에 동참해주신 그 수고와 힘들음을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기에 참 감사하면서 안쓰럽다. 그래서 친구보다는 전우 같은 것 같다. 힘들지만 꼭 누군가는 해야 하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의 최전방에 서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함께 담당하는 그런

동지들 같은……

몇 년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 신나게 수업을 진행한 해도 있고 또 개구쟁이들이 많아 유달리 힘들게 1년을 보낸 해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진급해서 올라가고 또 그 개구쟁이들이 졸업을 해 유스 그룹으로 진급 하는 날은 울지 않은 적이 없다.

저 멋진 아이들을 부족한 내게 맡겨 주신 것에, 또 그 아이들의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 볼 수 있게 허락하심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 드리며 그 큰 감동에 흐르는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다.

쉽고 신나기만 한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안다. 이 긴 시간의 썬플라워 선생님으로 섬기는 시간 동안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이익을 본 사람은 나는 것을.

그저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실력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했기에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해야 했고, 말 안 듣는 개구쟁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했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는 당당히 내 아이들이라 말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나에게 보여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함께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작별을 말하기가 힘이 든다.

선생님 한번 하면 힘만 들고 표시도 안 나고 또 발 빼기 힘들다고 한번 그만 두면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농담을 한다. 나도 다시는 이 생활 안해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안다. 다시 안하고는 못 견딜 것이라는 것을. 그만큼 귀한 시간이었고 행복했으니까.

마리아 여선교회

회장 김향인 집사

“45 세 이상의 “여성” 교인(직분에 상관 없이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 성도)들로 구성된 마리아 여선교회입니다. 항상 교회의 부역 주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분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부역에서 시작되는 봉사와 헌신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에 보스톤 한인 교회의 모든 분 들에게 그리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 사랑의 전달하는 선교회입니다.

지난 해 12 월 총회에서 신임회장(김향인 집사)을 선출하여 2월 임시 총회를 거쳐 신임 임원단(고문: 이성혜, 김영순, 윤미자, 부회장: 차난희, 총무: 김동숙, 서기: 고경아, 회계: 윤선미, 봉사부장: 신미송, 선교부장: 이성숙)들이 2014 년도 마리아 여선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환경 보호를 위하여 Brookline시에서는 더 이상 일회용 그릇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곡그릇 200 개를 구입하여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은혜의 교제시간들을 가지며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3월 첫째 주일에는 세계 기도일 예배를 에스더 여선교회로 부터 상록회에 이르기까지, 보스톤 한인 교회의 여선교회원들 40여 명과 함께 Community Center에서 드렸습니다. 이 기도예배는 1887년 미국에서 일곱 자녀를 둔 Darwin James라는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던 기도회 입니다. 그 당시 미

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미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마련한 여성 선교모임에서 기도 일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지금은 180 개 여러 나라들이 동참하는 세계적인 기도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2014년에는 이집트 여성들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라!” 의 주제로 함께 기도를 읽으며 감사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는 늘 우리들 앞에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함께합니다. 속하신 모든 회원들이 다 ~~~ 같이 하시면 더 나은 마리아 여선교회 가 될 것입니다.

“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배소서 6:18)



“1월 12일생” 의 2014년 다짐

김문소 장로, 김준구/한문수 집사

1월은 새해의 첫 시작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하는 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해마다 다짐하며 새 출발하는 달.

12일은 성경적 의미가 깊은 숫자를 뜻하는 날이요,
12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한 짝찬 숫자라.
12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12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12는 새 예루살렘 열두 문에 열두 천사 앞에서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라.

해서 우리 1월 12일생은
창세전에 택하여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소유
남은 여생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리.

집사회

최현구 집사

지난해 회장단으로부터 집사회 살림을 인수인계 받아 2014년도 2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문장로 : 엄재관

전임회장고문단: 최정열, 김동규

회장: 최현구 총무: 이재익
서기: 이지훈 회계: 김용욱
건물관리부(부/차장): 김대식 / 배광현
경조부: 최정열
봉사부(부/차장): 정광근 / 최학수
체육부(부/차장): 백승한 / 류승열
친교부: 김현주 홍보부: 정재원

2월21일 금요일 저녁에 교회 지하 소예배실에서 고문이신 엄재관 장로님을 모시고 집사회 새임원들이 모여 올 한 해 집사회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게 될 사업들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3월 22일 토요일에 실시한 봄맞이 교회 대청소로서 주님의 교회를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기 위해 장로님, 각 부서 목사님, 전도사님, 청년부 형제 자매들까지 약30여명의 교우님

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엄재관, 이정규 장로님 두 분께서 가장 어려운 작업인 1층 부엌의 스토브 청소를 맡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김건철, 이요한 목사님, 김수영 전도사님께서도 집사님들, 청년부 형제자매들과 조를 이뤄 교회의 구석구석을 열심히 청소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월5일에는 예배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제직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집사회에서는 몇 가지 순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는 집사회가 주관하는 연중행사 중 교회의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어머니주일 (5/12) 오찬준비가 계획되어 있고, 5/24일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Watertown의 Arsenal Park에서 전교인 야유회를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각 위원회 및 부서,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크고 작은 교회의 행사 및 살림을 잘 감당해내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올 한해도 열심히 섬기는 집사회가 되도록 교우님들의 기도와 지원, 그리고 집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Sunflower주일학교

진정원 집사

[During This Season of Lent]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사순절 기간 동안 해바라기 주일학교에서는 전도사님을 비롯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읽기와 기도, 그 밖의 결심한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산 제사’, ‘산 정전’ 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I’ll Be A Living Sanctuary Project’ 를 하고 있습니다.

1. Read the Bible -- One Chapter a Day
2. Pray Every Morning and Night (Set up a specific time every day)
3. Media Fasting (No TV, You tube or Face book)
4. Negative Action Fasting

No complaining, no arguing or fighting, no judging others, or no lying

5. Be Creative!! (You can come up with another idea of what to do.)

Examples: Eat a lot of vegetables, help mom and dad at least 3 times a day, no video games, etc.

이 중에서 본인이 직접 한 두 개를 결정하여서 어린이 성전 예배당 내의 게시판에 각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정한 것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기를, 힘들어지고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ansom 중 고등부

안은신 집사

김수제 전도사님이 저희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오신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전도사님과 많이 친해지면서 전도사님의 말씀과 인도로 믿음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중고등부가 되고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와 찬양이 사랑의 향기로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 반 동안 중고등부 6학년을 섬기신 김희수 선생님께서 당분간 쉬시면서 senior 학생인 Pearl Choi가 6학년 반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동안 섬기신 김학주 선생님도 그만 두시게 되어서 황동준 집사님께서 임시로 9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2014년 1월 19일 에는 교회에서 lock-in을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lock-in 과 달리 시간제한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마련해 주신 맛있는 점심을 먹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비디오를 보고, 친구들과 찬양을 부르며, 게임으로 교제하고, 3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의 좋은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3월 2일에는 교회에서 mini-lock in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학부모님들이 점심을 맛있게 준비해 주셨고 16명의 학생들과 전도사님 부부가 참석하여 찬양의 시간, 게임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가지었습니다. 이제 두 달에 한번씩 주일 예배가 마친 후에 가

질 계획입니다.

3월 8일에는 두 번째 여학생들의 모임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매달 여학생들이 모여 전도사님 Faith 사모님이 인도하시는 나눔의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합니다.

다음 3개월 중고등부 스케줄입니다.

4월 18-20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Grotonwood 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매년 봄방학 스케줄에 맞춰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족 여행을 계획하실 때 미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4일 주일 예배 후 mini-lock in 이 중고등부 방에서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오후 7시까지 오서 아이들을 픽업해주시면 됩니다.

6월에는 중고등부 파리(Paris) 단기선교 현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많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드리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나와 교회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황우성 집사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전 세대당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고 교육받으며 살게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교회와 신앙은 외부의 세계로부터 많은 비웃음과 따돌림을 받고 있다.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조국의 복음화 과정과 성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나이, 성별, 이념 그리고 계급의 유별이 강하고, 경직된 유훈전통이 남아 있던 한반도를 한 세기 안에 서구적 개념의 초 근대 국가로 만들어 놓았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구한말부터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아 신교육과 사회제도에 선한 영향력과 위로를 주며 개혁을 주도 해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조롱으로 움 추러 들고 자꾸 변명하게 만들고 있다.

배금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우리 스스로가 그들과 타협함으로써 그 속에서 조용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다. 결국엔 세상과 복음을 통해 능동적으로 위로를 주며 화합해야 하는 우리가, 그들과 수동적으로 조롱 받으며 혼합해 버린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모두는 유치원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어떤 삶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인지, 어떤 교회의 역할이 사회를 변혁시킬지는 다 알고 있다. 복음주의의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다녀온 나부터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성령 충만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 예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의 체험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무기력은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듣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단지 살아 숨쉬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러저럭 세상에서 연명하는 교회 출석 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령이 충만한 자녀가 되시길 바라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나부터도 한때는 너무나 열성적인 신앙태도는, 금방 식어 버려질 것이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 항상 중간 이상은 하는 후보에 기대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 삶이란 것은, 극성의 교인이라 힐책 당하는 부류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이다.

나는 1992년에 부모님이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그 후 2003년 미국 보스턴으로 오기 전 12년 가까이 사할린과 모스크바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소련 붕괴 후 6개월도 안되어서 들어가게 된 러시아는 이제 막 위태롭게 자본주의로의 첫발을 디디고 있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전진해 나가야 할 새로운 러시아 사회는, 세상과 타협적으로 변한 지금 우리 신앙인의 모습처럼, 러시아에 많은 해악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들도, 점차 사회가 어지럽게만 돌아가자, 그 중에 공산당 독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보이기 시작했다.

어린 눈에도 당장은 혼란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고 잘못된 이념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무기력이 지배하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패배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구 소련은 엄청난 천연 자원과 최고의 독서량과 교양을 지녔다는 인적 자원이 많았음에도, 잘못된 이념과 주님의 없는 사회로 실상은 극심하게 비효율적이고 수동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된 것이다.

주님의 위로 없이 살아온 삶이란 것은 그렇게 풍부한 소련의 넓은 대지도, 믿음의 자유와 경제적으로 안정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빈곤과 비효율, 그리고 우울증으로 채워 버린다. 항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복이 있기 마련이다. 나 또한 때때로 무기력해질 때면,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에 위로로 채워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세상은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지만,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기력은 주님의 위로로 극복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란 것은 단지 죄의 형벌에서 건짐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좀더 미래 지향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 땅에서 실현하게 위해 좀더 그 창조 목적에 다가가기 위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나는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그 창조목적 증명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 없이 반세기 만에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민족,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 복음 받은 나라에서 이전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민족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토양에서 할아버지, 부모 세대가 이뤄놓은 이런 훌륭한 신앙의 업적을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되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김경애 권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그 날은 우리 니카라과(Nicaragua) 단기선교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무슨 일인지 킁킁한 구름이 아주 낮게 끼었고 바람도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우리 선교 단원들에게 “오늘은 우리의 숙소가 있는 마사야 시내에서 한



참 떨어진 디리오모(Dirihomo)라는 마을에 목사님이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의 은사교회’로 아침 선교 (및 진료)를 갑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아직 완전히 건물이 준공이 안되어 의료선교는 교회 건물 밖 나무 밑에 작은 텐트를 치고 해야 합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려면 큰 개울을 지나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비가 안 와서 버스로 쉽게 개울을 건널 수 있었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면 금방 강으로 변하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오늘은 날씨가 안 좋고 폭풍이 올 수 있으므로, 그 교회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보스턴한인교회의 선교 팀 받기를 원한다면 금요일에 비가 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라고 부탁해 놓았으니 걱정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선교장비를 모두 버스에 싣고 언덕을 넘고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달려서 산카라람피오(San Cararampio)지역 디리오모(Dirihomo)마을에 있는 교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가 오면 강으로 변한다는 개울을 쉽게 건너서 교회에 도착하니 Alberto Rodriguez 목사님과 교인들, 또 동네 사람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아직 완성이 안된 상태였고, 교회 옆 목사님 사택 마당엔 돼지와 닭, 개, 고양이, 염소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마당에 있는 몇 개의 야자수 나무를 기둥 삼아 간단한 천막을 치고, 의료진료 할 곳과 약국, dental clinic, 안경점 등을 차리고, 교육 팀은 어린이들을 모아 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료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구름은 더 낮게 끼어 팔을 하늘로 뻗으면 금방 구름을 잡을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어서 우리가 나무 밑에 친 조그만 천막이 흔들리며 날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금방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하늘과 거센 바람엔 아랑곳없이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선교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보스턴한인교회에서 온 단기 선교 팀을 만나기 위해 마을사람들은 아마도 옷장 깊은 곳에 숨겨 놓았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고, 우산을 들고 먼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일생 동안 막노동물 하여 팔, 다리, 허리에 생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피부염에 걸린 아이들. 어떤 중년 남자분은 노안이 와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는데 우리가 드린 돋보기 안경(reading glasses)을 끼고는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진료가 무사히 끝나고 점심 때가 되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 선교사님은 진료장비를 거두고 버스를 타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료장비를 거두어 들고,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시골 밭 길을 지나 버스에 올라타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버스에 타고 개울을 건너자마자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우렁찬 천둥소리와 함께 큰 빗줄기가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이 밤새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의 아침 선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려고 비와 바람 까지 멈추게 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심을 감사 드렸습니다.